

물방울무늬의 크기가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원피스드레스를 중심으로-

최혜원[†] · 류숙희^{*}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계명대학교 패션대학 텍스타일디자인학과

Influence of the Size of Polka Dots on the Image of Clothes -Focused on One-piece Dress-

Hye-won Choi[†] · Sook-hee Ryou^{*}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Dept. of Textile Design, College of Fashion, Keimyung University

(2006. 11. 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mage of clothi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dots' size was analyzed and its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image of polka dots clothing was investigated. White waterdrop patterns were designed on the 12 kinds of black texture using Photoshop and CAD program in regular arrangement of diamond figure, composed of white waterdrop(0.5cm, 1.0cm, 1.5cm and 2cm in diameter) and interval(diameter : interval - 1 : 1, 1 : 2, 1 : 4). Applying above specification, the photograph stimulus of 12 kinds of X-line one-piece dress with wide square neckline and without sleeve or detailed ornament was presented on a screen in the same size as when putting it on. The image of polka dots clothes was investigated by questionnaire survey. The object of the study was 320 females aged between 16 and 29.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Scheffé verification and two-way ANOVA using SPSS 10.0 were carried out for data analysis.

Followings are the results:

- 1) The image of polka dots clothing consists of 4 factors as aesthetics, brevity, dynamism and lightweight.
- 2) The size of the do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image of polka dots clothing.
- 3) The evaluations of the image of polka dots clothing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age and physical imag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investigation.

Key words: Polka dots, The dots, Waterdrop patterns, The size of polka dots, The image of clothes; 물방울무늬, 물방울무늬, 물방울무늬, 물방울무늬의 크기, 의복이미지

I. 서 론

현대에 있어서의 의복은 실리적인 기능 외에 사람

들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 미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태도, 가치관, 정서, 의도, 기호(嗜好)와 같은 내적인 특성을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의복은 착용자의 성격특성, 지속적인 기질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하며 개성과 같은 문화적 취향, 정치적 견해를 상징해주는 요

[†]Corresponding author

E-mail: cindy8099@hanmail.net

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복의 이미지는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선, 형, 공간, 재질, 무늬, 색채와 같은 여러 디자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중 무늬는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생활감정의 표현이기도 하다(조규화, 1999).

무늬는 선, 공간, 형태, 또는 색채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신체적인 면의 효과와 심리적인 면의 효과가 결합되어 무늬 그 자체의 인상을 창조하며, 전체의 효과를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며 미묘하거나 다양하게 만든다(Davis, 1980). 이것은 색을 띄고 있는 선, 공간, 형이라는 디자인 요소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조작이 가능하고 그 자체로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매개체 및 구성요소의 역할을 하므로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또한 가장 단순한 것이라도 그것이 표현된 표면에 생기를 주는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늬가 있는 표면은 무늬가 없는 표면에 비해서 눈을 그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김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한 인상을 준다(谷田關次, 石山彰, 1978).

의복에서 사용되는 무늬는 착시라는 지각 작용을 통하여 착용자의 체형을 실제 형태와 달리 보이게도 하고, 무늬가 주는 심리적 효과로 인해 의복이미지에 도 영향을 미친다. 무늬는 또한 장식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매개체로 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조규화, 1999).

의복의 무늬는 크기, 간격, 방향, 선의 굵기, 색채 등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달라지게 되며(박금옥, 1996) 같은 실루엣이라도 재질감과 색채와 조합되어 패턴의 종류에 따라 무늬와는 다른 조형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무늬는 색을 지닌 선, 공간, 형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패션디자인 요소로서 직물 디자인이나 의복디자인 분야에서 이미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김윤경, 2000).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무늬의 이미지나 선호도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무늬의 시각적 효과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물방울무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유행과 계절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에 애용되고 있는 물방울무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요인을 밝히고, 물방울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분석하며 또한 개인적 특성이 의복이미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물방울무늬의 시각적 효과가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로써 의류학 분야에서 물방울무늬의 이미지평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며 의류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물방울무늬

물방울무늬는 물방울을 본떠서 둥근 모양을 흠어지게 한 무늬를 말하는데 점무늬, 도트(dots)무늬, 스폿(spots)이라 하기도 한다. 물방울무늬는 줄무늬, 체크무늬 등과 함께 시대적 유행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용되어 온 고전적인 무늬로서 물방울무늬의 크기는 지름이 약 1mm-15cm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일정한 크기의 무늬를 등간격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무늬는 타원형, 물방울 크기가 서로 다른 것, 다채색인 것 등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다.

小管啓子, 小林茂雄(1990)은 흑백구성에 의한 무채색의 기본적인 물방울무늬를 색지로 제작하여 분석한 결과 물방울무늬의 이미지는 명료성 인자, 단순성 인자, 중후성 인자로 나타났다. 여기서 명료성 인자는 물방울무늬의 크기에 관련되고, 단순성 인자는 물방울무늬의 간격에 관련이 있음을, 중후성 인자는 물방울무늬의 바탕색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최은영(1995)은 기본형 재킷에 흑백의 물방울무늬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제작하여 물방울무늬의 크기와 명도대비에 따른 체형의 착시효과와 이미지 효과를 연구한 결과 물방울무늬의 크기가 커질수록 단순성과 대담성 이미지가 증가하고, 저명도의 배경색에 고명도의 물방울무늬가 있는 경우가 가장 낯선 해 보이며, 동적이고 매력 있으며, 대담하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유진(2005)은 텍스타일디자인의 조건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요소와 영향을 물방울무늬 원피스의 색상과 무늬의 변화에 의하여 조사하였는데, 물방울의 크기보다 색상에 의해 시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빨강의 물방울무늬 원피스는 다른

색상과 비교하여 이미지의 특징이 뚜렷하며 물방울 크기에서도 시각적으로 느끼는 이미지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2. 연령과 의복행동

인간이 의복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은 의복 자체의 요인과 함께 그것을 선택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의복의 선택에서 기대되는 차이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연령과 의복선택과의 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연령에 따른 의복선택의 유형은 여전히 남아있다. 즉, 의복의 어떤 측면이 중요시 되는가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유경숙, 1996).

이미강, 이인자(1985)는 20대는 분홍, 주황, 노랑, 30대는 연두, 바다색, 40대는 하늘색, 풀색의 색채를 선호하며, 무늬의 경우 20대는 줄무늬와 무늬 없는 직물, 30대는 점무늬와 전통무늬, 40대는 꽃무늬와 점무늬 등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조진숙(1993)은 추동용 정장양복과 콤비양복의 줄무늬 간격 선호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넓은 간격(30mm),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중간 간격(16mm)으로 나타나 젊은 층은 넓은 간격을 선호하고 30대 후반 중년층부터 줄무늬 간격이 좁더 좁은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류숙희, 김보연(2002)은 연령이 낮을수록 클래식한 스타일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엘레강스한 스타일과 드라마틱한 스타일을 대담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이외 다수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선호색, 무늬의 종류와 크기, 의복스타일 평가와 선호도 등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3.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신체이미지(body image)란 우리의 신체적 자아, 즉 우리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서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요소일 뿐 아니라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Cash & Pruzinsky, 1990). Schilder(1978)는 신체이미지를 “마음속에 형성된 신체에 대한 그림”으로 정의하였으며, Huddy et al.(송경자에서 재인용, 1997)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와 연관된 느낌과 태도”로 정의하였다. 의복은 이러한 신체

적 자아의 연장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상징적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어왔다.

의복과 신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의복의 선택 동기나 의복만족도, 의복태도와 행동은 신체만족도, 그리고 신체에 대한 기분과 감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조선명, 2001). Kwon and Parham(1994)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뚱뚱하다고 느낄 때와 날씬하다고 느낄 때의 신체에 대한 감정 상태에 따라 뚱뚱하다고 느낄 때는 편안한 의복 기능을 추구하고, 날씬하다고 느낄 때는 패션의 기능을 추구하는 등 의복을 통한 혜택과 기능 추구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Jacobi and Cash(199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는데 남녀 모두 자신의 실제 사이즈를 왜곡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지각된 사이즈와 이상적인 사이즈 간에도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자신의 지각된 사이즈보다 더 마르고 큰 키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송경자(1997)의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많았으며, 심리적 의복 의존도가 높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비교적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선호하였고, 자신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광경 외(2001)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외모와 몸매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사회적 안정을 받으려고 하고 성적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신체가 매력적이고 운동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몸매를 강조하는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제 체형보다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이미지가 실제 소비자의 의복선택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물방울무늬는 크기, 간격, 명암 등의 강도 증감에 따라 효과적으로 의복에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무늬의 연구의 한 부분으로 연구

되거나 디자인요소, 색상, 명도차이 등에 따른 단순한 이미지 평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변인에 의한 물방울무늬의 시각적 효과를 연구하여 실제적인 디자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요인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물방울무늬의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알아본다.
- 연구문제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물방울무늬 크기의 의복이미지를 알아본다.
 - 3-1: 연령에 따른 물방울무늬의 의복이미지를 알아본다.
 - 3-2: 신체이미지에 따른 물방울무늬의 의복이미지를 알아본다.

2. 측정 도구

1) 물방울무늬 및 의복 형태의 선정

물방울무늬 크기와 간격의 선정에 있어 기본크기는 시장조사를 거쳐 가장 활용도가 높은 4가지 크기(지름: 0.5cm, 1.0cm, 1.5cm, 2.0cm)로 하고, 간격은 이를 기준으로 7단계(물방울 지름: 물방울 간격- 1:1, 1:1.5, 1:2, 1:2.5, 1:3, 1:3.5, 1:4)로 된 물방울무늬를 의류학전공자 10명에게 제시하고, 사진 자극물이 주는 느낌이 차이가 나는 집단을 선택하게 하여 가장 많은 수가 선택한 물방울 간격(물방울 지름: 물방울 간격- 1:1, 1:2, 1:4)이 선택되었다. 색상 또한 명도차가 가장 커서 조사 대상자들의 이미지평가에 유리한 검정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로 한정하였다.

실험의복의 형태는 자극사진의 수가 과다해지면 조사 대상자가 평가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형태를 선행연구(박종희 외, 2000; 이경희, 1991; 이인자, 1998)에 따라 매력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X-line 원피스드레스가 물방울무늬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소매와 세부장식이 없는 wide square neckline의 X-line 원피스드레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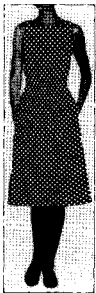










2) 자극물 제작

선정된 물방울무늬를 동일한 형태의 소매와 세부

장식이 없는 wide square neckline의 12가지 X-line 원피스드레스에 적용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자극물은 검정바탕에 흰색 물방울을 규칙적인 다이아몬드 배열방식으로 구성한 무늬로 한정하였다. 의복을 직접 착의할 때와 동일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실제 의복과 동일한 크기로 얼굴부분은 제외한 X-line 원피스드레스 착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자극물은 Photoshop과 CAD 프로그램으로 제작되

<그림 1> 의복자극물 (단위: cm)

지름 지름:간격	0.5	1.0	1.5	2.0
1:1				
	(0.5/0.5)	(1.0/1.0)	(1.5/1.5)	(2.0/2.0)
1:2				
	(0.5/1.0)	(1.0/2.0)	(1.5/3.0)	(2.0/4.0)
1:4				
	(0.5/2.0)	(1.0/4.0)	(1.5/6.0)	(2.0/8.0)

※(0.5/0.5); 물방울 지름/물방울 간격

었으며 <그림 1>의 12가지 자극물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의복이미지 형성 척도의 구성

물방울무늬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의복이미지 형성 척도에 의한 설문지 응답법을 사용하였다. 계명대학교 의류학 전공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30장의 물방울무늬 사진을 제시하여 자유언어 연상법을 실시한 결과 형용사 의미의 유사성과 빈도수를 고려하여 수집된 형용사(2005년 9월 12일~20일)와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된 형용사 26개중 유사성과 빈도수를 고려하여 최종 19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선정된 19개의 형용사에 대한 반대어는 수집된 자료에서 그대로 추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반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반의어사전(전수태, 1990)과 국어사전(이희승, 2002) 등을 통해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형용사는 좌우에 무작위로 배치하였으며 느끼는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료를 통계처리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에 1점,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에 7점을 부여하였고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모호한 형용사 쌍은 임의로 점수를 주어 7단계 의복이미지 형성 척도로 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만 29세 이하 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 2일~12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장소는 계명대학교 패션대학의 CAD 실습실을 이용하였고, 평가기간 동안 날씨가 쾌청한 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4개의 물방울 크기(지름- 0.5cm, 1.0cm, 1.5cm, 2.0cm)×3개의 물방울 간격(물방울 지름: 물방울 간격- 1:1, 1:2, 1:4)의 이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으며 12개의 자극물은 각 피험자에게 한 개씩 무순으로 제시되었다.

자극물의 제시시간은 3분이었으며 피험자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각 자극물 사이에 1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자극물의 배경은 명도 4의 무채색으로 처리하여 배경색과 자극물의 대비현상을 최소로 하여 배경색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자극물과 피험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속 성	구 분	빈 도(%)
연 령	만 16세-만 19세	138(45.8)
	만 20세-만 24세	108(35.9)
	만 25세-만 29세	55(18.3)
	합 계	301(100.0)
결혼 여부	미 혼	285(94.7)
	기 혼	16(5.3)
	합 계	301(100.0)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4(44.5)
	전문대·대학교 재학 및 졸업	142(47.2)
	대학원 재학 이상	25(8.3)
	합 계	301(100.0)
직 업	학 생	232(77.0)
	전업주부	6(2.0)
	사무직/전문·경영관리직	30(10.0)
	판매·서비스직/생산·기술직	6(2.0)
	기 타	27(9.0)
	합 계	301(100.0)

자사이의 거리는 선행연구(문삼련, 1993; 박혜령, 1995; 이경희, 1991)에 따라 4m로 하였다.

2) 자료분석

조사대상자 32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응답을 제외한 301명의 응답이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Cronbach's α , 요인분석, 분산분석, Scheffé 검증 등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요인

19쌍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한 결과, 요인수는 고유치 1.0 이상의 4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마음에 들지 않는-마음에 드는', '입고 싶지 않은-입고 싶은', '보기 싫은-보기 좋은', '멋없는-멋있는', '천박한-우아한', '매력없는-매력있는', '불편한-편안한', '칙칙한-산뜻한', '재미없는-재미있는' 등

<표 2>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요인

요인명	형용사 쌍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심미성	마음에 들지 않는-마음에 드는	.790	.135	.025	.061
	입고 싶지 않은-입고 싶은	.731	.096	-.009	.055
	보기 싫은-보기 좋은	.644	.277	.070	.232
	멋없는-멋있는	.640	.101	.194	.191
	천박한-우아한	.600	.109	-.261	.007
	매력없는-매력있는	.598	.122	.122	.248
	불편한-편안한	.583	.374	-.052	-.058
	칙칙한-산뜻한	.528	.170	.310	.070
요인 2. 간결성	재미없는-재미있는	.507	-.085	.392	.036
	복잡한-단순한	.131	.783	.045	.034
	답답한-시원한	.269	.676	.255	.168
	어지러운-정돈된	.410	.636	-.120	.003
	특이한-평범한	.038	.559	-.345	.050
요인 3. 역동성	강한-약한	.142	.539	-.362	.197
	점잖은-발랄한	.101	-.024	.717	-.033
	정적인-동적인	.076	-.014	.656	.007
요인 4. 경량성	수수한-화려한	-.034	-.408	.517	.179
	뚱뚱해 보이는-날씬해 보이는	.242	-.026	-.167	.783
	무거운-가벼운	.104	.200	.171	.723
	고유치	3.94	2.60	1.97	1.40
	설명량(%)	20.74	13.69	10.41	7.41
	누적설명량(%)	20.74	34.44	44.85	52.26
	Cronbach's α	.83	.73	.52	.47

9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심미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3.94이며 전체 설명량의 20.7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복잡한-단순한', '답답한-시원한', '어지러운-정돈된', '특이한-평범한', '강한-약한' 등 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간결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60이며 전체 설명량의 13.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점잖은-발랄한', '정적인-동적인', '수수한-화려한' 등 3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동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97이며 전체 설명량의 10.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뚱뚱해 보이는-날씬해 보이는', '무거운-가벼운' 등 2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량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40이며 전체 설명량의 7.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요소들의 신뢰도는 0.47-0.83이며,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 사이에 비교적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물방울의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

물방울의 크기가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가지 물방울 지름 : 물방울 간격(1 : 1, 1 : 2, 1 : 4)에 각각 4가지의 물방울 지름(0.5cm, 1.0cm, 1.5cm, 2.0cm)을 주어 총 12가지 종류의 의복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 결과를 종합하여 4가지의 물방울 지름(0.5cm, 1.0cm, 1.5cm, 2.0cm)에 대한 의복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각 요인별 요인점수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물방울 지름 : 물방울 간격이 1 : 1일 때 물방울 지

<표 3> 물방울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이 분석

지름:간격	의복이미지 요인	지름(cm)				F 값
		0.5	1.0	1.5	2.0	
1 : 1	심미성	3.03 b	3.17 b	3.61 a	3.66 a	25.29***
	간결성	2.91 b	2.80 b	3.33 a	3.57 a	27.53***
	역동성	3.81 b	4.44 a	4.52 a	4.46 a	24.85***
	경량성	3.82	3.59	3.75	3.61	1.84
1 : 2	심미성	3.54 b	3.83 a	4.00 a	3.81 a	11.15***
	간결성	3.50 b	3.84 a	4.03 a	3.91 a	15.16***
	역동성	3.99 c	4.29 ab	4.52 a	4.25 b	12.08***
	경량성	4.22 a	4.17 a	3.99 a	3.68 b	11.38***
1 : 4	심미성	3.99 ab	4.05 a	3.97 ab	3.81 b	2.90*
	간결성	4.28 b	4.18 b	4.62 a	4.61 a	14.63***
	역동성	3.48 b	3.86 a	3.81 a	3.66 ab	6.40***
	경량성	4.65 a	4.33 b	4.14 bc	4.00 c	14.13***
총 합	심미성	3.52 c	3.68 b	3.86 a	3.76 ab	16.40***
	간결성	3.56 b	3.61 b	4.00 a	4.03 a	38.55***
	역동성	3.76 c	4.19 ab	4.28 a	4.12 b	34.88***
	경량성	4.23 a	4.03 b	3.96 b	3.76 c	18.52***

* $p < .05$, ** $p < .01$, *** $p < .001$

a>b>c: Scheffé test결과로 .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름(0.5cm, 1.0cm, 1.5cm, 2.0cm)의 이미지를 각 요인 별로 비교해 보면, 경량성 요인을 제외한 심미성, 간결성, 역동성 요인이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심미성, 간결성 요인에서는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심미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역동성 요인에서 1.0cm, 1.5cm, 2.0cm는 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나 0.5cm는 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경량성 요인에서는 물방울 크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물방울 크기와 간격의 비례가 같아서 무겁게 딱 찬 느낌이 들게 되어(유송옥, 2001) 전반적으로 경량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물방울 간격이 1:2일 때 4요인은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심미성 요인에서는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심미성과 간결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역동성 요인에서는 1.5cm가 가장 동적인 이미지로, 0.5cm는 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경량성 요인에서는 물방울 크기가 작을수록 날씬해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물방울 간격이 1:4일 때 4요인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심미성 요인에서는 1.0cm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간결성

요인에서는 모든 물방울 크기에서 대체로 간결성이 높게 나타났고, 1.5cm와 2.0cm는 가장 단순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역동성 요인에서는 대체로 역동성이 낮았다. 경량성 요인에서는 대체로 경량성이 높게 나타났고, 0.5cm가 가장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물방울 간격(1:1, 1:2, 1:4) 3가지를 종합해 보면 <표 3>, 물방울 크기가 0.5cm, 1.0cm, 1.5cm, 2.0cm 일 때 4요인은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심미성 요인에서는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1.5cm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간결성 요인에서는 1.5cm와 2.0cm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역동성 요인에서는 1.5cm는 가장 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0.5cm는 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경량성 요인에서는 0.5cm가 가장 날씬해 보이는 이미지로, 2.0cm는 가장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즉, 물방울 크기가 작을수록 마음에 들지 않고 복잡하며 정적이고 가벼운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마음에 들고 단순하며 동적이고 무거운 이미지로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방

울 크기가 작을수록 가벼워 보이는 것은 원의 개개의 형태가 두드러지기 보다는 배경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밀집된 하나의 면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무거워 보이는 것은 물방울무늬의 큰 원 모티프가 개개로 인지되어 체형을 더욱 뚱뚱해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 결과는 최은영(1995)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물방울 크기가 가장 클 경우(2.0cm)에는 오히려 심미성과 역동성이 낮아졌다. 이는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물방울 원 모티프의 뚱뚱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이미지가 강조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방울 간격이 촘촘할 때(1:1)는 모든 물방울 크기에서 경량성이 낮게 평가되어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나 물방울 간격이 성글수록(1:2, 1:4) 경량성이 모든 물방울 크기에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물방울 간격이 촘촘할 때의 무겁게 짝 찬 느낌이 물방울 크기와 함께 의복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물방울 간격이 촘촘할수록 뚱뚱해 보이고 무거운 이미지로 평가 된 것이라 생각된다.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물방울무늬 의복이미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인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직업 중 연령을 제외한 결혼 여부, 학력, 직업에서는 자료가 편중되어 있기에 연령에 따른 물방울무늬 의복이미지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신체이미지에 따라 의복이미지 평가에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물방울무늬 의복이미지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물방울무늬 의복이미지를 분석하였다.

1) 연령에 따른 물방울무늬 의복이미지

연령이 물방울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인 만 16세~만 19세를 '10대 후반', 만 20세~만 24세를 '20대 전반', 만 25세~만 29세를 '20대 후반'으로 명명하여 요인별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정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령에 따른 물방울 크기의 의복이미지 차이 분석

지름(cm)	의복이미지 요인	연령	10대 후반 (n=138)	20대 전반 (n=108)	20대 후반 (n=55)	F 값
0.5	심미성		3.44	3.54	3.66	2.22
	간결성		3.37 b	3.72 a	3.73 a	7.88***
	역동성		3.85	3.64	3.76	2.47
	경량성		4.12	4.33	4.32	2.51
1.0	심미성		3.71	3.63	3.72	.60
	간결성		3.54	3.68	3.62	1.12
	역동성		4.18	4.17	4.27	.49
	경량성		4.06	4.12	3.83	2.58
1.5	심미성		3.90 ab	3.74 b	4.01 a	4.50*
	간결성		3.93	4.01	4.14	2.10
	역동성		4.32	4.29	4.20	.68
	경량성		3.96	3.99	3.92	.13
2.0	심미성		3.85	3.65	3.75	3.48
	간결성		4.06	4.03	3.96	.48
	역동성		4.13	4.16	4.03	.64
	경량성		3.73	3.89	3.60	2.66

*p-value<.05, **p-value<.01, ***p-value<.001

a>b>c: Scheffé test결과로 .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물방울 지름이 0.5cm일 때 간결성 요인에서 0.1% 수준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10대 후반은 가장 복잡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물방울 지름이 1.0cm일 때는 4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물방울 지름이 1.5cm일 때는 심미성 요인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20대 전반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며, 20대 후반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물방울 지름이 2.0cm일 때는 4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보아 10대 후반은 가장 작은 물방울(0.5cm)을 세 연령대 중 가장 복잡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20대 전반은 중간 크기 물방울(1.5cm)을 세 연령대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나, 20대 후반은 중간 크기 물방울(1.5cm)을 세 연령대 중 비교적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2) 신체이미지에 따른 물방울무늬 의복이미지

조사대상자들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분포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전신, 상반신, 하반신을

마른, 보통, 통통한의 3종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전신이미지를 ‘마른’으로 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의 17.9%, ‘보통’으로 답한 사람은 51.9%, ‘통통한’으로 답한 사람은 30.2%를 차지하였다. 상반신이미지는 ‘마른’으로 답한 사람이 조사대상의 30.2%, ‘보통’의

<표 5> 조사대상자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분포

속 성	구 분		빈 도(%)	
신 체 이미지	전 신	마 른	54(17.9)	
		보 통	156(51.9)	
		통통한	91(30.2)	
	합 계			301(100.0)
	상 반신	마 른	91(30.2)	
		보 통	130(43.2)	
		통통한	80(26.6)	
	합 계			301(100.0)
	하 반신	마 른	46(15.3)	
		보 통	114(37.9)	
		통통한	141(46.8)	
	합 계			301(100.0)

<표 6> 신체이미지에 따른 물방울 크기의 의복이미지 차이 분석

지름 (cm)	신체이미지 의복 이미지 요인	전 신				상 반 신				하 반 신			
		마 른 (n=54)	보 통 (n=156)	통통한 (n=91)	F 값	마 른 (n=91)	보 통 (n=130)	통통한 (n=80)	F 값	마 른 (n=46)	보 통 (n=114)	통통한 (n=141)	F 값
0.5	심미성	3.61	3.54	3.42	1.53	3.54	3.59	3.37	2.68	3.53	3.59	3.46	1.14
	간결성	3.65	3.61	3.44	1.74	3.58	3.60	3.48	.61	3.76	3.55	3.51	1.89
	역동성	3.84	3.69	3.84	1.65	3.73	3.83	3.68	1.20	3.78	3.83	3.70	1.11
	경량성	4.31	4.21	4.21	.37	4.30	4.21	4.19	.48	4.11	4.24	4.26	.67
1.0	심미성	3.70	3.69	3.65	.15	3.67	3.75	3.58	1.81	3.77	3.73	3.62	1.46
	간결성	3.55	3.61	3.64	.23	3.56	3.61	3.65	.29	3.75	3.55	3.61	1.39
	역동성	4.26	4.19	4.15	.46	4.16	4.24	4.15	.69	4.07	4.23	4.20	1.07
	경량성	4.22	3.99	3.99	1.88	4.18	3.98	3.93	2.53	4.22	4.01	3.99	1.50
1.5	심미성	3.88	3.90	3.79	1.10	3.97 a	3.86 ab	3.75 b	3.07*	4.01	3.82	3.84	1.89
	간결성	3.95	3.98	4.05	.47	4.08	3.95	3.99	1.18	3.97	3.93	4.06	1.23
	역동성	4.20	4.23	4.35	1.67	4.27	4.27	4.32	.20	4.20	4.31	4.29	.49
	경량성	3.98	4.02	3.85	1.52	4.06 a	4.01 ab	3.76 b	4.01*	4.25 a	3.85 b	3.95 b	4.75**
2.0	심미성	3.65	3.84	3.69	2.71	3.86	3.75	3.65	2.62	3.87	3.76	3.72	1.07
	간결성	4.00	4.04	4.04	.08	4.10	3.97	4.06	1.22	4.03	3.99	4.07	.52
	역동성	3.87 b	4.20 a	4.14 a	4.87**	4.04	4.13	4.20	1.22	3.92	4.12	4.19	2.67
	경량성	3.59	3.86	3.69	2.93	3.92	3.68	3.73	2.63	3.94	3.73	3.73	1.47

*p-value<.05, **p-value<.01, ***p-value<.001

a>b>c: Scheffé test결과로 .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로 답한 사람이 43.2%, ‘통통한’으로 답한 사람이 26.6%를 차지하였고, 하반신이미지는 ‘마른’으로 답한 사람이 조사대상의 15.3%, ‘보통’으로 답한 사람이 37.9%, ‘통통한’으로 답한 사람이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물방울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신체 이미지를 요인별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정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물방울 지름이 0.5cm, 1.0cm일 때는 4요인은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방울 지름이 1.5cm일 때는 상반신의 심미성 요인, 경량성 요인, 하반신의 경량성 요인이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상반신이 ‘통통한’으로 답한 조사 대상자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고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하반신이 ‘보통’으로 답한 조사 대상자가 가장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물방울 지름이 2.0cm일 때, 전신의 역동성 요인이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전신이 ‘마른’으로 답한 조사대상자는 정적인 이미지로, ‘보통’, ‘통통한’으로 답한 조사대상자는 동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이를 보아 대체로 상반신과 하반신이 ‘통통한’으로 답한 조사 대상자가 ‘마른’으로 답한 조사대상자보다 물방울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의복무늬 중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애용되고 있는 물방울무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물방울 크기의 시각적 효과에 따른 의복이미지와 개인적 특성이 이미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 결과가 의복무늬의 디자인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의복형태로 된 원피스드레스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방울무늬 의복에 대한 이미지는 심미성, 간결성, 역동성, 경량성의 4요인으로 구성되며, 4요인 중에 심미성 요인, 간결성 요인이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방울 크기에 따라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 4요인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물방울 크기가 작을수록 마음에 들지 않고 복잡하며 정적이고 가벼운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마음에 들고 단순하며 동적이고 무거운 이미지로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방울 크기가 가장 클 때(2.0cm)에는 오히려 심미성과 역동성이 낮아졌는데, 이는 물방울 크기가 클수록 물방울 원 모티프의 뚱뚱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이미지가 강조되어 중간 정도 크기의 물방울(1.5cm)보다 물방울의 동적인 이미지가 약화되고 호감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다른 물방울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0대 후반은 물방울무늬를 마음에 들지 않고 복잡한 이미지로 평가하며, 20대 전반은 세 연령대 중 물방울무늬를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후반은 중간 크기의 물방울(1.0cm, 1.5cm)을 마음에 들어 하며, 특히 지름이 1.5cm, 일 경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방울무늬는 세 연령대 중 10대 후반, 20대 전반보다 20대 후반에서 호의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신체이미지가 물방울 크기에 따른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상반신이 ‘통통한’으로 답한 조사 대상자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고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하반신이 ‘보통’으로 답한 조사 대상자가 가장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물방울 지름이 2.0cm일 때, 전신이 ‘마른’으로 답한 조사대상자는 정적인 이미지로, ‘보통’, ‘통통한’으로 답한 조사대상자는 동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통통한’으로 답한 조사 대상자가 ‘마른’으로 답한 조사대상자보다 물방울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뚱뚱해 보이는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물방울 크기는 물방울무늬 의복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착용자의 연령과 신체이미지를 고려하여 의복을 디자인한다면 의복판매와 소비자 만족도에 있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물방울 크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물방울무늬 의복의 이미지를 미적이거나 정돈되어 보이거나 발랄해 보이거나 날씬해 보이도록 연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대구지역의 만 16세 이상 29세 이하의 여성이라는 지역, 연령층, 성별에 한정되어

있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적용대상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색상, 네크라인, 실루엣에 제한을 둔 원피스드레스로 의복이미지를 평가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색상, 소재, 네크라인, 실루엣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포괄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학술·산업계에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윤경.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숙희, 김보연. (2002). 연령에 따른 의복스타일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8, 63-74.
- 문삼련. (1993). *의복형태와 물방울무늬 공간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금옥. (1996). *색채와 무늬에 따른 직물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 의복의 형태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8), 1177-1186.
- 박혜령. (1995). *의복디자인 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경자. (1997). *신체이미지·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태도적·시각적 신체이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경숙. (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송옥. (2001).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강, 이인자. (1985). 성인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1), 9-16.
-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유진. (2005). 텍스타일디자인(색과 문양)이 피복의 시각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1)-일본인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지*, 19(1), 37-46.
- 이인자. (1998). 직물문양 차이에 따른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예술논집*, 21(1), 41-54.
- 이희승. (2002).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전수태. (1990). *반의어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조규화. (1999).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 조신명.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청소년기 여학생이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조진숙. (1993). 추동용 정장양복과 콤포지션의 색채 및 직물 무늬에 관한 연구-성인 남성의 연령별, 신체적 조건 및 직업에 따른 선호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93-210.
- 최은영. (1995).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겨자무늬와 물방울무늬를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24, 193-203.
- 谷田開次, 石山彰. (1978). *服飾美學·服飾意匠學*. 東京: (株) 光生館.
- 小管啓子, 小林茂雄. (1990). 水玉柄のイメージの考察. *纖維製品消費科學志*, 31(9), 427-431.
- Cash, T. F. & Pruzinsky, T. (1990). *Body images-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avis, M. L. (1980). *Visual design in dress*.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Jacobi, L. & Cash, T. F.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con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Kwon, Y. H. & Parham, E. S. (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16-21.
- Schilder, P. M. (1978). *The image and appearance of the human body*.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